



# 월간 청렴 등대 3월호

매달 청렴의 방향을 비추는 안내서



## 3.1절 특집 동부경남 첫 독립함성 양산서 울려퍼졌다.

일제강점기 우리고장 양산에서 국권회복을 위해 벌어진 독립운동은 선각자들의 비밀결사운동을 시적으로 1919년 3월 13일 하북면 신평의거, 3월 27일의 양산읍내 의거, 이후 1920년대의 청년운동·신간회운동·소년운동·부인회운동·근우회운동, 1930년대 전 반기의 혁명적 농민운동, 1941년의 학생운동 등이 계속되었고, 우리고장 양산지역의 독립운동은 해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 신평 만세 운동 (3월 13일) : 동부경남 최초 3.1운동

1919년 3월과 4월에 양산 하북면 신평마을과 양산읍 시장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으로, 만해 한용운의 지시로 동도사에 내려온 오택언이 동도사 지방학림 학생대표들과 만나 1919년 3월 13일 장날 학생과 승려 및 군중들이 신평마을에서 함께 만세 시위를 하였다. 이어 5월 4일에는 400여 명의 주민이 재차 시위를 하였고, 지도부의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고 격렬한 시위로 일본 헌병들의 무기를 빼앗기도 하였으며, 이웃 연양까지 진출하였다.

하북면 신평 3.1운동 모습



### 양산 읍내 만세 운동 (3월 27일)

양산읍내에서는 엄주태, 전병건 등이 주도하여 1919년 3월 27일 3,000여명의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4월 1일 이귀수, 류계문(柳桂文)등이 재차 독립시위를 주도하였다. 시위 주동자들 11명은 대구감옥에서 8개월에서 2년의 형을 살았고, 양산의 3·1운동에 참가한 다수의 지식인과 청년들은 출옥 이후 1920년대 양산 지역 사회 운동과 민족운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남부시장 입구 삼일운동 발원지



### 윤현진 선생의 헌신

3.1운동 당시 하나의 군(郡)에서 네 번의 3·1운동이 일어난 경우는 드물었고, 양산 읍내보다 하북면 신평지역에서 먼저 시위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동도사에서 일찍부터 운영하고 있던 지방학림과 서울의 중앙학림 학생들이 만해 한용운 선생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고장 양산의 충절을 대표하는 윤현진 열사 또한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3·1운동 당시 양산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하여 초대 재무차장, 재무위원, 내무위원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다.

윤현진 열사(1892~1892), 상복 소토



3.1절 정신과 청렴

현대의 애국, 청렴으로 화답

과거의 애국이 독립이었다면

현대의 애국은 청렴입니다.

1919년 3월, 양산 신평 장터의 첫 함성부터 읍내 장터를 가득 메운 3,000여 명의 결기는 오직 나라를 되찾겠다는 승고한 일념이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선조들의 기개는 우리 고장 양산을 경남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우뚝 세웠습니다.

과거의 애국이 일제에 맞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애국은 '청렴'이라는 이름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관행이라는 달콤한 사탕 발림을 과감히 거절하고, 투명한 원칙이라는 필터로 업무를 걸러내며, 시민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 — 이것이 바로 107년 전 선조들이 꿈꿨던 '정의로운 나라'를 완성하는 현대적 애국입니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가 그 강직한 역사의 후예임을 기억하며, 일상 속 작은 청렴 실천으로 양산의 자긍심을 지켜나갑시다.

3.1절 맞이

태극기 바로 달기

펼럭 펼럭



국기의 게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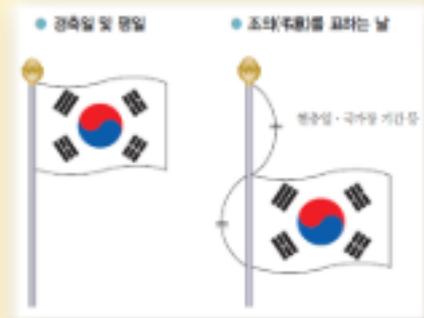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 1일)
-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를 다는 시간

-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 다는 시각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 (3월~10월) 오후 6시, (11월~2월) 오후 5시
-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달지 않는다.

국기 다는 법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 다른기도 조기로 게양
- 예외 사항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조기임을 알아둘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 단다.
- 국기를 다는 위치
  1.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
  2. 건물 주변 : 지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 중앙, 주 출입구 중앙
  3. 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

3월 8일은 국제 **여성의 날**

**직장 내 성희롱 대처 핵심 가이드**

**[의사표현]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상대방의 언행이 불쾌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즉시 단호하게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침묵은 동의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대면 거절이 어렵다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매체를 활용해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이는 추후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기록확보] 객관적인 증거와 기록**

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행위 내용, 목격자, 본인의 감정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메시지 대화, 녹취,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추후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강력한 바탕이 됩니다.



**[도움요청] 공식 절차를 통한 상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사내 상담 창구(고충상담원)나 외부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통해 신속한 분리 조치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법률 및 심리 지원 등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채널**



**공직자 부패행위 익명신고프로그램**

신고자에 대한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소속원의 비위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부패행위 익명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관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 대상 : 복무위반, 금품등 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 방법 : 경상남도 홈페이지, 모바일 앱(케이취슬)

※ 익명신고는 실명인증을 거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신고기관의 관리자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서버에만 저장하고, 경상남도청 감사위원회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  
**부패행위 익명신고**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클린공단**

- 이용 방법
  - ①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 ② 상단 메뉴 → 클린공단 선택
  - ③ 신고 유형 별 신고서 작성
- 고객피해구제
  - 시설 내 업무수행 중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 부조리신고
  - 부패,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행위 신고
- 클린신고
  -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제36조 금품수수 관련 신고
- 성희롱신고
  - 공단 내 성희롱 고충처리
- 공익신고
  - 반부패, 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연계)

